

News

소상공인 자금수요 여전...5월 은행권 중기대출 7.4조원 ↑

연합뉴스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4월보다는 적지만, 평소 월 2조~3조원대 늘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
중소기업 대출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줄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 분석...정부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위한 금융지원 확대 주문...

하나銀 "법원에 DLF중징계 판단 물겠다"...행정소송

이데일리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징계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물겠다는 의도
하나은행, 금융당국 징계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지배구조법은 회사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의 법...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다..."

은행 직원 2명 중 1명은 '과·차·부장'...관비 과다로 신규채용은 제한

아시아투데이

은행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과장·차장·부장 등 책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전체 직원 중 절반이 업무를 '지시'하는 책임자
책임자 비중 확대는 은행들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실제 은행들의 임직원수는 줄고 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무섭게 크는 카뱅... 검사 못 나가는 금융당국은 '떨떠름'

조선비즈

카카오뱅크 3년 만에 자산 4배 급성장했지만 금감원 현장 검사는 아직까지 받은 적 없어...카카오뱅크는 당초 올해 7월쯤 금감원의 현장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올해 하반기 예정된 검사는 코로나로 미뤄질 듯...카카오뱅크의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금융당국 안에서 나오기 시작...

금융당국, '깜깜이' 해지환급금 보증비용 손본다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을 얼마나 떼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
보험사마다 보증비용을 떼는 게 제각각인데 비교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의도로 해석

디지털 기반 종합손보사 '하나손해보험' 공식 출범

매일경제

하나손해보험은 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디지털 기반 종합 손해보험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반 '신생활보험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 관계사와의 다양한 시너지를 통해 손해보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제시해 나갈 것"

코스피 2000 숨은 주역? '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 논란

한국일보

한쪽에선 그간의 주가 상승에 공매도 금지가 상당한 기여를 했고, 최근엔 오히려 이로 인한 증시 과열을 우려할 상황이라며 공매도 조기 부활 필요성을 거론
하지만 실물경기를 감안하면 언제든 주가가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공매도 부활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IB업계, 대체투자로 '전통SOC' 다시 주목

건설경제

민간투자 SOC가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가운데 금리인하에 따른 기존 도로 및 발전, 환경시설 등에 대한 리파이낸싱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지난 3~4년간 부동산PF 채무보증을 늘리면서 상당한 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총액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적악화가 불가피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